

# 정례브리핑

2020.7.13(월) 10:30, 여상기 대변인(통일부)

7월 13일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차관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은 내일 화요일 오전 9시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7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차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되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동북아 현황과 과제' 학술회의에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김기현 의원이 SNS에서 주장한 내용과 관련해서 통일부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이인영 장관 후보자와 재산형성 과정 그다음에 납세자료는 제출을 했고, 자녀 병역의무이행 여부와 스위스 유학자금 출처 등의 자료는 현재 준비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네.

<질문> 그러면 준비 중인 자료는 관련 절차가 마친, 준비가 다 되는 대로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답변> 말씀하신 자료는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준비가 완료되면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닙니다, 제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관련된 질문인데요. 어제 김기현 의원 측에서 주장한 것은 통일부의 인사청문 담당직원에게 그 자료를 요구했다, 그런데 그 직원하고 통화한 내용까지 얘기하면서 뭐 국회가 너무한 것 아니냐, 하면서 오히려 큰소리쳤다 했는데 그 담당직원이 존재하나요? 있나요?

<답변> 담당직원이, 국회 담당직원이 있었어요.

<질문> 아니,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은 직원이 있냐하는 거죠.

<답변> 네,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있고요. 직원을 확인해보니까 줄 수 없다는 내용으로 말을 한 적은 없고요.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질문> 그럼 그 직원이 공식적으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답변> 그렇게 발언한 적이 없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질문> 아니 그러니까 '민감해서 자료를 줄 수 없다.'라는 말은 안 했지만 김기현 측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고 그 직원이 전화를 받았고 그러면 그 직원은 김기현 의원실에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그걸 알

아야 민감해서 자료를 줄 수 없었다, 라는 얘기를 안 했다는 게 밝혀지잖아요.

<답변> 상식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공무원인 통일부 직원이 자료를 줄 수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자료제출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아직 의통위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방법 가지고 서로 말들이 오고 갔을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 질의하신,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민감하니까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질문> 북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요. 통일부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어떤 인도적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북한의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일단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의 문제가 있겠죠. 많은 일부 소식통들을 인용한 보도에서 북한의 사망자가 무려 500명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북한 당국은 공식적으로 단 1명의 확진자도 없다는 입장이고 이를 WHO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 공식 당국의 발표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북한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일전에 차관계서 어디... 저기 국회에서 보고하시면서 코로나 관련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원의 내용을 질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질문> 그게 어떤 지원이었는지, 그런 지원을 하신 적이 있으신 건지.

<답변> 그때 발표하신 내용은 WTF와 관련한 내용이었고요. 그것을 지원을 검토 중에 있다가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가 있어서 그때 시행 시기를 보류한 바가 있습니다.

<질문> WFP 말씀,

<답변> WFP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제출 관련된 질문인데요. 통일부 어제 해명자료에서 외통위 전체회의가 개최되지 않아서 공식 요구자료와 서면 질의가 들어온 바 없다고 했는데, 김기현 의원실에서 해당 직원에게 전화를 통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은 공식 요구자료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답변> 네, 공식 요구자료도 아니고 일부 의원실에서 협조 차원에서 요청하는 수시자료입니다.

<질문> 수시자료에 대해서는 일단은, 수시자료에 대해서도 지금 대답

을 준비 중이라는 말씀인 거죠?

<답변> 네, 관련... 수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